

# 일본 엿보기

김 성 진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장

**결핵** 연구소가 있는 기요세시는 동경의 한 중심부인 이케부끄로부터 30분 이내의 지방철도가 연결된 동경도 구석의 조용한 도시이다.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았으며 도로에 따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도, 차도 모두 이용할 수 있었고 인도 구석마다 문턱을 없애 자전거 통행에 장애물을 제거했다.

전철역과 백화점, 슈퍼마켓 주변에는 커다란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다. 신호등을 지키며 도로에서 자동차와 공존하는 자전거를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여자들은 대다수 치마를 입고 있어 이상하였다. 여학생들은 교복치마를, 젊은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시내를 자전거로

누비고 다녀서 우리 외국연수생들 사이에 작은 화제거리였다. 한 남자 연수생이 자전거 통근을 하는 일본인 여자 직원에게 왜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가 묻자 자기네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하며 문화적 차이로 설명을 했다. 또한 그로인해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는 없나는 알קות은 질문으로 웃음을 자아낸 적도 있었다. 시내 주행시 40km 이하의 속도를 지키며 신호등이



▲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긴자거리의 자동차가 없는 '보행자' 거리이다.

늦게 반응하여 출발하는 앞차가 있더라도 크락슨 소리를 내지않고 기다리는 운전자의 여유는 부러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차선의 좁은 도로로 한쪽에 인도가 없는 도로였지만 보행자를 우선하는 자동차 운전이 돋보였다.

주택가에서는 좁은 집에 어렵게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작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었고 골목길로 나올 경우 안전을 위해 양옆을 볼 수 있는 반사경 2개씩이 앞기둥에 달려 있었다.

개를 몰고다니는 주민들을 도로나 공원에서 마주쳤으나 길에서 전혀 배설물을 보지 못했었다. 그 후에, 데리고 다니던 개가 공원에서 배설을 하자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깨끗이 치우는 광경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이 없는 개들은 시에서 잡아가다 보건소에서 처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심 속의 많은 공원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울창한 숲과 연못이 있는 공원은 시민을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내가 자주 이용했던 결핵연구소 옆의 자연공원은 하나의 커다란 숲으로 많은 시민들의 휴식장소였다. 공원 근처의 한 고등학교는 6면의 테니스장과 운동장주변을 그물망으로 둘러 쌓아놓고 남녀 학생들이 스포트볼게임과 축구를 할 수 있었고 주변은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거의 모든 학교는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소 앞쪽의 또다른 공원 4면의 테니스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국제규격의 노천수영장

이 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 이용객이 많지 않았던 여름 수영장 입장료는 1,500원으로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었다.

연수과정중 지방의 보건소를 방문하느라 시골에 간적이 있었는데 넓은 논 일부분에 경작을 않고 비어 있는 곳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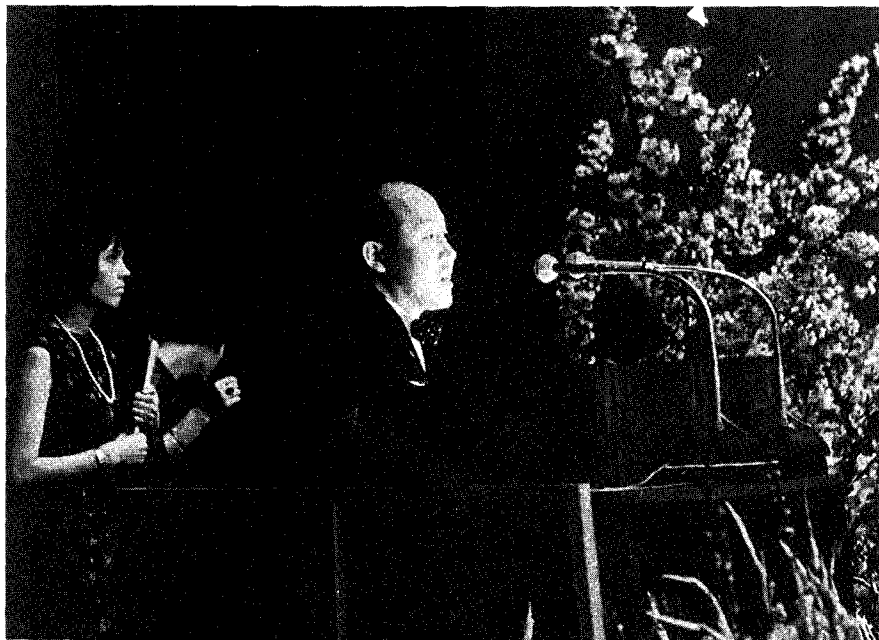
일본측 설명은 일본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수확량을 예측한뒤 잉여쌀을 막기위해 경작을 못하게 하거나 논을 갈아 정부에서 해당되는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정부주도의 사회주의 성향을 엿보았다.

항상 정부의 예측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94년에는 냉해로 인해 쌀 수확량이 적어 태국등에서 수입하여 충당했다고 한다. 또한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긴 나라인 일본은 노인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낮시간대에 노인복지시설을 한 지방현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서구식 양로원과 달리 유아원처럼 아침에 가족이 모시고 나온 뒤 낮시간을 보내고 저녁시간에 다시 집에 돌아가는 진보된 시스템이었다. 건물안에 수영장, 실내 게이트볼구장, 조각실, 도자기실, 어린이방등이 있었고 하루 이용료는 3,000원 정도로 저렴했다. 지하에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물품을 파는 매장이 있었다. 노인들을 모시는 맛벌이부부들을 위해 좋은 제도였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한국의 밤

- 향수에 시달리는 간호사들 -

이 수 길  
의학박사 · 독일소아과 전문의



▲ 1967년 핵스트세기회관의 한국의 밤 행사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간호사들에게 제일 무서운 복병은 무엇보다도 향수병이며 이 때문에 잠을 제

대로 자지 못하여 병을 만들어 고생하는 간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기 간호사의 “고국에 가고 싶다”는

글을 보면 짐작이 갈 수 있다.

가을이 오면 언제나 느껴오던 애절한 마음이 올해따라 더욱 절실해 옴은 이국인의 틈바구니에서 얻은 짙은 고독감 탓일까.

보내는 이들의 작별인사가 오히려 싱겁던 내가 이제 겨우 3개월 되었을 뿐인 외국 생활에서 이토록 주체할 길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줄은... 아직 내겐 극성스럽다는 느낌이 들만큼 열성적인 독일 여성과의 근무는 힘에 겨운 피로를 느끼게 해주지만 그런대로 환자들의 따사로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마음편하다.

이들간의 휴기는 몇배나 더한 피로를 안겨 주었다. 비싼 수송료 때문에 어쩌다 부쳐오는 몇장의 신문. 제목만 훑어보던 것을 요즘은 광고란까지 샅샅이 읽고 그것도 아쉬움이 남아 마지막엔 갈 수도 없는 영화프로에 정신을 쏟고, 땀냄새 풍기는 삼류극장의 한국석에서나마 앉아볼 수 있는 기쁨이 내게 부여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내 마음은 서글퍼지고 마는 것이다.

어디를 가나 눈에 뜨이는 가난에 지친 시들한 표정이 역겨웠던 지난날, 어느 주점에서 흘러나오는 대중가요가 꽤도 유치하다고 외면해 버리던 사치스럽던 그 마음.

지금 받아줄 이 없는 가난한 내 침실에서 마구 눈물을 펄펄 쏟으며 애청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노래인 것을.

돌아가 살고 싶다.

비록 보잘 것 없고 초라한 내 조국이라 할지라도 푸근한 웃음과 정다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내 그리운 그곳으로. 하여 설움에 접던 내 얼굴을 누구의 가슴엔가 묻고 마음껏 마음껏 울어 버리고 싶은 것이다.

이향숙

나는 간호사들의 향수를 달래고 서로 의지하여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동시에 독일사람을 초대하여 한국간호사들과 친교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다.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프랑크푸르트 중심에 있는 탑앞 극장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한국영화를 보든지, 웨스트시립병원 대강당에서 노래자랑과 춤 등으로 친목회를 개최하곤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종종 지방신문들이 대서특필로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 돌아가 살고 싶다.  
비록 보잘 것 없고 초라한  
내 조국이라 할지라도 푸근한  
웃음과 정다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내 그리운 그곳으로. ■

여기에 힌트를 얻은 나는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서독에서는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거행하여 한국간호사 중심으로 전 독일에 우리 고유의 예술을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우선 세계적인 웨스트회사 사장에게 '한국의 밤'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 **웁스트 세기회관에서  
거행된 한국의 밤 행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지금까지 이 회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  
어떠한 나라도 없었다.** ■

일단 한국 웁스트제약회사의 의견을 들  
어본 뒤 최종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  
다고 생각하여 친분이 두터운 김신권 한  
국제약회사 사장에게 편지와 전화를 걸  
어 한국의 밤 행사를 전적으로 찬성한다  
는 의사를 웁스트사장에게 통보하여 즐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

드디어 웁스트 사장으로부터 한국의  
밤 행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실무  
자인 볼케 약제사와 그의 직속상관과 실  
무적인 타협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볼케 약제사와 나는 무수한 회동을 그  
의 사무실과 나의 사무실을 전전하면서  
가졌고 한국의 밤 행사를 1967년 4월 14  
일 금요일에 서독 최대 극장인 3,500명  
을 수용하는 웁스트 세기회관에서 개최  
하기로 했다. 회관 사용료를 제외한 총  
예산경비 4만 마르크를 책정, 이 행사를  
추진하여 모든 경비 지출은 웁스트회사

에서 직접하고, 나는 한국간호사들을 동  
원하여 노래와 춤, 가야금 출연을 주선  
하고 간호사 자치회가 독일손님들과 한  
국손님의 접대를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현지 독일가정과  
친교가 있는 분과 독일 동료들의 명단을  
알려주면 초대권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웁스트 세기회관에서 거행된 한국의  
밤 행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지  
금까지 이 회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  
어떠한 나라도 없었다.

4백여 명의 우리 간호사들은 독일문화  
영화를 감상한 다음 웁스트사의 환대를  
받으며 최신시설의 동사를 견학하고 독  
일식 점심을 대접받았다.

저녁 6시부터 강공사와 프랑크푸르트  
시장등 700여명의 인사들을 초청, 한국  
음식으로 저녁 대접을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의 밤」은 차츰 무르익어갔다.

음식재료를 모두 한국에서 직접 구해  
다 만든 쌀밥, 김치, 깍두기, 미역국,  
잡채, 튀김 등 한국고유의 음식들은 레  
스토랑을 가득 메운 손님들의 군침을 들  
게 하기에 충분했다.

독일손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호기  
심을 나타냈다. 개중에는 한국에 다녀왔  
거나 젓가락질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  
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포크대신 놓인 젓  
가락을 들고 어쩔줄 몰라했다.

웁스트회사 대표가 우리 간호사들의  
봉사정신을 찬양, 감사해하고 피차 국토  
가 분단된 두 나라가 서로 돕기 위해 한  
독간의 이해를 높이자고 주장했을때 우  
리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공사도 답변에서 1882년 한독통상조약 이래 오늘처럼 한독우호가 꽃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1시간 정도의 연회가 끝난 뒤 7시부터 일반 관람객들이 「메인홀」에 입장하기 시작해서 8시 정각에 노래와 춤, 연극의 다음 순서가 벌어졌다.

독일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방송국 전속악단의 반주로 60명으로 구성된 우리 합창단은 한복의 옷깃을 여미며 애국가를 불렀다. 이어 아리랑, 몽금포 타령, 푸른하늘 은하수를 차례로 합창해 나가자 홀을 가득 메운 3,500명의 관람석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 휩싸였다.

웁스트병원의 유민자양의 가야금 독주와 박봉원양의 창 「사랑」은 우리 고전음악의 맛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유양은 동백기름에 참빛으로 빚어 넘긴듯 말쑥하게 비녀를 찌른 머리랑, 금박을 넣은 한복을 입고 가야금의 선율과 더불어 한국여성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성대하고 성공리에 끝난 이 행사는 무보수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와 연습을 한 우리 간호사들의 청성과 노력의 댓가였다. 한국의 밤의 성과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지의 극찬으로 나타났다. ■

이어 찬조출연한 태권도 시범이 청중들을 다시한번 열광케 했다.

원헌시에 사범으로 와 있는 권재화씨가 20명의 독일문화학생들을 한국말로 지휘했을때 우리는 남다른 긍지를 감출 수 없었다.

청중들의 끈덕진 앙코르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연장된 한국의 밤은 60명 합창단의 도라지타령과 꽃바구니춤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국의 밤의 성과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지의 극찬으로 나타났다.

성대하고 성공리에 끝난 이 행사는 무보수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와 연습을 한 우리 간호사들의 정성과 노력의 댓가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고 나는 친일파로 모략을 받아 고초를 당하였으며 동백림사건때 중앙정부에서 고문을 받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몇명의 유학생과 대사관 직원들이 무대위에 우뚝 서 있는 일본신사대문과 그 밑에 걸려있는 태극기의 네귀에 있는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했다. 모두들 “이수길이 친일파인줄 미처 몰랐어! 태극기도 제대로 못 그리는 무식한 주제에…” 등등의 험악한 말을 하여 옆에 듣고 있던 간호사들이 나에게 다음날 귀뜸하여 주어, 아차 내가 실수하였구나고 후회하였으나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대사관은 이 사실을 외무부와 중앙정부에 각각 보고하였었다. †